

대학도서관 장서구성의 영향요인 분석

—부산대학교도서관 교육학장서를 중심으로—

김 정 근* 김 종 성**

<목 차>

- | | |
|---------------------------|----------------|
| I. 무엇이 문제인가
-서론에 대신하여 | (1) 장서개발규정 |
| 1. 문제제기 | (2) 사서 |
| 2. 방법과 자료 | (3) 수증자료 |
| II. 부산대학교도서관 교육학장서의
현황 | (4) 자료구입예산 |
| 1. 양적 현황 | 2. 이용자 요인 |
| 2. 질적 현황 | (1) 교수 (2) 학생 |
| III. 장서구성의 영향요인 | IV. 어떻게 할 것인가. |
| 1. 도서관 요인 | -결론에 대신하여 |
| | 참고문헌 |

I. 무엇이 문제인가

— 서론에 대신하여 —

1. 문제제기

도서관의 구성요소를 크게 장서, 사람, 시설로 나누어 볼 때 이용자를 유인하는 도서관의 핵심요소는 장서이다. 따라서 '장서는 대학도서관의 심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부산대학교 도서관 사서

1) Y. T. Feng, "The Necessity for a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Statement",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 23, No.1(1979 winter), p.39.

그러면, 현재 이나라 대학도서관의 장서는 어떠한가? 그것은 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비체계적이고 불균형한 장서구성, 이용되지 않는 구간과 복본의 과다소장, 보완할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높은 결호율을 가진 연속간행물, 대학사회 구성원의 학습과 연구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장서의 수준. 일반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한다면 이처럼 대학의 심장중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장서는 분명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서관 현장은 현장대로 강단은 강단대로 도서관의 장서문제에 대한 확실한 문제의식과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해온 것 또한 사실이 다.

1987년 가을 부산대학교에서는 그동안 캠퍼스의 '무풍지대'였던 도서관에 강한 바람을 일으킨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총학생회 인권복지위원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인권복지위원회, 도서관학과 학생회가 연대하여 벌인 부산대학교 도서관 개혁운동³⁾이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문제점을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순수한 열정으로 그 개선을 요구하는 36건의 선언문을 생산했다. 그중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12건의 선언문을 이들은 도서관 장서에 관한 부분으로 할애하고 있다. 그중 한 선언문에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⁴⁾

2) 김정근은 대학도서관 장서의 폐쇄상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 적이 있다. "대학도서관장서(University library collection), 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가. 얼마나 해방적인 이름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가. 그런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 만신창이, 이 왜소성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단 말인가? 이 인간이 연출한 비극의 배후는 무엇인가? 이 저열성과 어두움의 배경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 김정근, "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 문제 -80년대 부산대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문화 34권 6호(1993. 11, 12), pp. 41-56.

3) 부산대학교 도서관 개혁운동은 1987년 9월부터 1988년 12월까지 새 학생주체들에 의해 진행된 자생적인 도서관 개혁운동으로 부산대학교 도서관 역사에 큰 전기를 마련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도서관 개혁운동은 몇몇 다른 대학도서관에도 과급되어 대학도서관 개혁운동의 기치를 들게 했다. 비록 도서관 개혁운동은 끝났지만 그때 그 개혁의 의지는 지금 부산대학교 도서관 전체에 내화되어 쉬임없는 개혁의 함해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등편, 부산대학교 도서관 개혁운동 자료집(1987. 9-1988. 12), 부산: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1989 참조.

4) 부산대학교총학생회등편, 앞의책, pp. 40-41, 제21선언문 '장서개발에 문제있다'.

“실제로 많은 학우들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도서관 장서에 대한 이용이 적어지게 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마디로, 도서관의 책은 ‘별볼일 없다’는 것이다.”

“현 실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도서관 당국에서는 오히려 “우리는 어쩔수 없다”, “지금의 방법이 더 좋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현실 안주적이고 체념 일변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서들의 손으로, 사서들이 주체가 되어 현재와 미래의 이용자를 위한 장서수집을 해야 한다.”

이것은 무려 7년전 학생들의 주장이다. 그리고 도서관개혁운동 이후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장서와 관련된 이와 같은 불만들은 여전히 현재성을 가진다. 이 연구를 위한 교육학장서 이용자그룹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도서관 장서에 대한 경험적인 증언을 풍성하게 해 주었다.

이용자그룹을 교수진, 대학원생, 학부생으로 나누어 실시한 면담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먼저 단행본에 대한 증언을 들어보자.

…서양서는 옛날책은 많은데 최근 자료는 없다. 기대를 안하고 서가에 갔다가 어찌다 발견하면 굉장히 반갑다⁶⁾

국내서의 경우 내 전공분야(교육사회학)에는 의외로 책이 있다.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있는 경우도 있다. 서양서는 아예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이다. 도서관이 심리적으로 아주 먼곳에 있는 것 같다⁷⁾

5) 도서관개혁운동 이후 현재까지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변화는 피부로 느낄수 있으며 그 내용은 부산대학교도서관, 도서관소식, 제1호(1989), 제2호(1990), 제3호(1992), 제4호(1993), 제5호(1993), 제6호(1993)에 잘 나타난다.

6) J교수와의 인터뷰 (94. 4. 19, 11:30-12:30, J교수 연구실) 이하 인용에서는 일시와 장소를 생략한다.

7) H교수와의 인터뷰 (94. 4. 19, 오후 4:00-5:00, H교수 연구실) 이하 인용에서는 일시와 장소를 생략한다.

서양서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주로 내가 추천한 책이나 다른 교수님이 추천한 책을 많이 이용하고 그 이외에는 별로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동양서는 가끔씩 찾으러 가는데 못찾고 올 때가 대부분이다.⁸⁾

석사 갑 : 동양서의 경우 개론서 위주이고 복본이 너무 많은것 같다. 그리고 신간이 너무 부족하다. 주제분야별로 고르게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내가 보기에 는 교육사회학분야와 교육철학분야가 양적으로 부족한것 같다.

박사 을 : 동 서양서 모두 신간이 없고 동양서의 경우 전공분야의 깊이 있는 장서가 없다.

박사 갑 : 솔직하게 이야기 하면 동양서는 거의 보지 않는 편이다. 왜냐하면 동양서는 대부분이 개론서들이기 때문에 연구에 이용할 게 없다. 이것은 비단 도서관장서의 문제라기 보다는 학문전체의 수준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서양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족한데 내가 학과 조교를 할때 교수추천금액중에서 남는 금액으로 필요한 책을 많이 추천해서 내 연구 분야는 비교적 많은 편이다.⁹⁾

학생 갑 : 교양도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신간이 많이 없는 것 같다. 대체로 쓸만한 책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학생 병 : 서양서의 경우 학부생은 잘 이용하지 않는 편이지만 가끔 찾으려면 거의 없는 편이고 있어도 교수나 대학원생들이 다 대출해간 뒤라서 학부생들은 대출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서양서도 개가제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¹⁰⁾

연속간행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증언을 들어보자.

8) C교수와의 인터뷰 (194. 4. 20, 오후 6:13-6:40, 전화인터뷰) 이하 인용에서는 일시와 장소를 생략한다.

9) 교육학과 대학원생과의 인터뷰, (1994. 4. 18, 오후2:00-4:00, 교육연구소, 그룹인터뷰) 이하 인용에서는 일시와 장소를 생략한다.

10) 교육학과 학부생과의 인터뷰, (1994. 5. 6, 오후 12:10-1:10, 교육학과학회실, 그룹인터뷰) 이하의 인용에서는 일시와 장소를 생략한다.

(연속간행물은) 단행본보다 이용을 많이 하는데 국내자료는 웬만하면 다 있는 것 같더라. 서양 잡지는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없는 경우가 많다. 가령 Education Theory, Teacher's College Record,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Education Studies,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같은 책은 교육학 전 분야에서 대단히 중요한 잡지인데 우리도서관에 없다¹¹⁾

잡지의 종수가 너무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내 학회지의 경우 좋은 자료가 많은데 별로 없는 것 같더라. 그리고 지금은 들어오는 잡지인데 지나간 호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 아쉽다¹²⁾

박사 갑 : 연속간행물은 요즘들어 많이 나아진것 같다. 그래도 외국잡지가 많이 부족하고 국내 학회지는 결호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연속간행물 같은 경우 학과나 연구소에 예산을 배정해서 구독하고 관리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석사 갑 : 연속간행물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열만 받고 나온다. 공교롭게도 항상 내가 찾으려고 하는 그 호수가 결호가 나 있더라.

석사 을 : 결호가 많은데 왜 보충을 안하는지 모르겠다.

박사 을 : 결호 문제가 심각하고 잡지의 주제 영역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연속간행물 관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목록함에는 있는데 서가상에 없는 책이 많고 우리가 기증한 책도 서가에 꽂히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석사 갑 : 연구자 입장에서는 신간자료가 중요하게 이용되는데 정리 중이라서 열람하기 불편한 경우가 많다. ¹³⁾

학생 갑 : 리포트를 쓰기 위해 연속간행물을 좀 이용하는 편인데 결호가 너무

11) J교수와의 인터뷰

12) C교수와의 인터뷰

13) 교육학과 대학원생과의 인터뷰

많고 지나간 호수는 없는 것이 많더라.

학생 명 : 학부생들은 대학원생이나 교수들에 비해 연속간행물을 잘 이용하지 않는 편이다. 그런데 우리과는 비교적 학부생들도 학회지나 논문을 많이 이용하는데 연속간행물은 절호가 많고 학위논문은 없는 것이 너무 많다.¹⁴⁾

이용자들은 현재의 장서에 만족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처음부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현재의 장서는 어떤 영향요인의 지배를 받아 왔는가에 대한 규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 방법과 자료

이 연구에서 지향하는 기본적인 연구 방법은 귀납적 연구 방법이다. 즉, 가설검증과 같은 연역적 방법을 지양하고 존재하는 현상과 사실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현상 이면의 복잡한 구조를 살펴 본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과학 연구에 있어서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해 내지 못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려는 요구에 의해 발전되어온 사회과학 연구 방법의 한가지 패러다임을 말한다¹⁵⁾.

14) 교육학과 학부생과의 인터뷰

15) 질적 연구는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사회연구의 필요에 의해 서양에서 이용되어 왔으며 1920년대 30년대에 '시카고 학파'에 의해 크게 발전되었다. 복잡한 사회현상을 규명하고 분석하려는 학문적인 욕구가 여러 학문분야에서 분출되어 나오면서 70년대 이후 질적 연구는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사회과학 연구방법으로 자리잡아 갔다. 질적 연구는 많은 다른 용어들로 불리기도 한다. 참여관찰법, 심층연구법, 현장연구(field research), 상징적상호작용주의자(symbolic interactionist), 내적관점(inner perspective), 시카고 학파(the Chicago School), 현상학적인(phenomenological), 사례 연구(case study), 해석학적(interpretive), 민속방법론적(ethnomethodological), 생태학적(ecological), 기술적(descriptive)등의 용어들이 질적 연구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들로 사용자와 시간, 연구 성격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질적 연구가 양적 연구에 비해 사회과학 연구방법으로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가 교육학, 행정학, 사회학 등의 분야에서 한국 현실에 적합한 연구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의 결과로 질적 연구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제반 사회과학 분야에서 유용한 연구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보그단(R. C. Bogdan)과 비클렌(S. K. Biklen)은 질적 연구의 특징을 다섯가지로 이야기한다. 첫째, 질적 연구에서는 자연적인 환경이 자료의 직접적인 근원으로 간주되며 연구자 자신이 주된 연구 도구이다. 둘째, 질적 연구는 기술적(descriptive)이다. 셋째, 질적 연구자들은 결과나

질적 연구에서 수집되는 자료는 사람들과 장소, 대화 내용들에 대한 풍부한 기술적 자료이며 통계적인 절차에 의해 쉽게 취급될 수 없는 연성적인(soft) 성격을 지닌다¹⁶⁾. 따라서 질적 연구는 처음부터 구체적인 연구 문제나 가설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지 않고 변인들간의 복합적인 관계속에서 연구 문제를 설정한다. 다시말해 질적 연구에서는 문제 해결 방법이 철저하게 그 문제의 성격에 근거해서 결정 된다는 것이며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 방안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가치 판단에 있어 어느정도 기존 권위를 배격한다는 의도를 내포한다고 볼 수도 있다¹⁷⁾. 질적 연구는 결국 연구의 방법과 자료에 의해 성격 지워지게 된다. 이 연구에서 이용되는 연구 방법과 자료도 하나같이 질적 연구의 입장을 특히 하는 것들이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패러다임에서 비롯된 가장 대표적인 연구 방법인 사례 연구(case study) 방법이 이용되었다. 사례 연구는 현실 속에서 다양한 방법과 자료로 현상을 분석하는 경험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가 직접 연구 대상에 접근하여 관찰하고 모든 데이터나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한다. 또한 연구 방법의 권위나 연구 결과를 중요시 하지 않고 포괄적이고 유연한

산물보다는 과정에 관심을 가진다. 넷째, 질적 연구자들은 모든 자료를 귀납적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질적 연구에 있어 '의미'가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다. 질적 연구를 소개하는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앨런 브라이언, 사회연구에 있어서 양적방법과 질적방법, 홍동식의 역, 부산:전문출판사, 1992; 로버트 C. 보그단, 사리 K. 비클렌, 교육연구의 새정근: 질적연구, 신옥순 역, 서울:교육과학사, 1991; Robert K. Yin,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Applied Social Research Methods Series Vol. 5,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1984; Sharan B. Merriam,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1988; L. S. 바리트 등, 教育研究와 現象學的의 接近, 홍기형 역, 서울:문음사, 1990.

16) Robert C. Bogdan, Sari Knopp Biklen 저, 신옥순 역, 위의래, p. 10.

17) 조동일은 조선시대 '학문방법론 혁신을 정착시키는 正政의 작업'을 한 사람으로 최한기를 들고 있다. 그에 따르면 최한기는 학문의 기본성향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확인에서 가치 판단과 방향제시를 도출하고자 했으며, 미리 정해진 해답을 논의의 전제로 삼지는 않았다. 성현의 말씀을 내세워 풀이하는 중세적인 논술의 방법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 탐구하는 주체가 되어 사실판단에 근거를 둔 가치판단의 논거를 마련했다. 일체의 기존권위를 불신하고, 사실에 입각한 이치를 밝히는 작업을 명쾌하게 하면서 학문의 신조를 확고하게 제시하여 학문방법론을 다지는 과업수행에서 커다란 비약을 이룩했다고 한다. 조동일, 우리학문의 길, 서울: 지식산업사, 1993 p. 178.

연구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사실의 기술을 중요시 한다¹⁸⁾. 이와같은 사례 연구의 유용성을 염두에 두고 이 연구에서는 부산대학교도서관 교육학 장서를 사례로 하여 장서 구성의 영향 요인을 살펴 보았다. 서가 속을 누비며 장서를 반복적으로 관찰 하였고 사서와 이용자들을 직접 면담하여 장서와 관련된 그들의 의식을 망라적으로 채집하였다. 이와 같이 참여 관찰과 면담을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장서의 모습과 사서, 이용자의 의식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기술적 사례 연구(descriptive case research)를 수행할 수 있었다.¹⁹⁾

이 연구에서는 부산대학교도서관 교육학장서를 하나의 사례로 하여 살펴보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일반적인 대학도서관 장서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분석되는 영향요인은 일반적인 대학도서관 장서구성의 영향요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산대학교도서관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나라 어느 대학도서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을 규정하는 환경이 대동소이하며 원천적으로 대학도서관에 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²⁰⁾ 이와 같이 본질적

18) 문헌정보학의 사례연구와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Charles H. Busha & Stephen P. Harter, *RESEARCH METHODS IN LIBRARIANSHIP: Techniques and Interpretation*, New York:ACADEMIC PRESS, 1980, pp. 151-154; Allen Kent & Harold Lancour ed.,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 4, New York:MARCEL DECKER, 1970, pp. 214-219.

19) 이효성은 언론학의 한국화를 주장하는 그의 논문에서 듀빈(Dubin)의 생각을 빌어 기술적 연구(descriptive research)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사회학자들 사이에서 흔히 기술적 연구가 무시되거나 폄하되기 쉽지만 어떤 과학에서든지 정확한 記述을 위한 기초적인 장이 있으며 기술적 연구가 존경을 받고 중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기술적 연구는 이론의 단위인 변인, 변인간의 관계에 관한 법칙, 변인들이 일정하게 상호작용하는 체계의 상태, 그 법칙이 적용되는 이론적 모델의 한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적절한 기술이 없이는 우리가 인지하는 세계와 우리가 이론화 하는 세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모델을 가질 수 없다." 이효성, "언론학의 한국화를 위한 시론", 한국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탐구: 커뮤니케이션 이론 토착화, 한국언론학회, 1993, pp. 198-214.

20)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사람, 자료, 시설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법령은 국립학교설치령(1977년 8월 30일 공포, 대통령령 제8672호 전문개정:개정 1993년 2월 23일 공포, 대통령령 제 13859호)과 대학설치기준령(1970년 1월 9일 공포, 대통령령 제4511호:개정 1991년 2월 1일 공포, 대통령령 제13282호) 정도이다. 그러나 이 법령들은 대학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골격만을 제시할 뿐 시대의 흐름에 맞는 대학도서관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김정근, "대학도서관발전의 계기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문화(한국도서관협회) 제30권 5호(1989. 9. 10), pp. 2-25.

으로 동일한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여러조직이 있을때 하나의 조직을 미시적으로 관찰하여 얻은 결과는 자연스럽게 다른 조직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연구 방법과 맞물려 이 연구의 적실성을 높여주는 다른 하나는 연구 자료이다. 연구를 위하여 조직되거나 생산되지 않은 경험적인 자료와 심층적인 의식을 채록한 면담 자료가 그것들이다. 도서관에서 생산된 공문들과 업무의 결과물인 각종 서류철은 물론이고 도서관과 이용자간에 오고간 서신까지도 연구의 자료로 이용 되었다. 또한 비체계적이고 복잡한 사서와 이용자의 의식을 구조화된 면담을 통하여 포괄적으로 이끌어 내어 유용한 자료로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하여 현상의 이면에 있는 여러 상황들을 사실적이며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기술할 수 있었다.

II. 부산대학교서관 교육학장서의 현황

1. 양적 현황

현재 부산대학교서관의 교육학장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양적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부산대학교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교육학단행본²¹⁾은 5,034종 9,212권으로 전체 단행본 516,535권²²⁾의 1.8%에 해당된다. 이 교육학장서를 교육학의 8개 세부주제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표 1>과 같다.

동양서의 주제분야별 장서량을 보면 교육행정학(11.9%), 교육과정(11.6%), 교육사회학분야(10.9%)가 많은 편이고 교육사(8.5%), 교육철학(6.7%), 교육방법 분야(5.6%) 장서가 중간 수준이며 교육심리학(2.9%), 교육평가분야(1.6%)는 적은 편에 속한다.

서양서의 주제분야별 장서량을 보면 교육행정학분야(20.3%)가 월등히 많고 그다

21) 교육학장서는 KDC, DDD 분류번호 370에 해당되는 장서를 통계한 것이다.

22) 이 통계는 1993년 10월 현재 장서량이다. 부산대학교서관, 도서관소식, 제6호(1993), p.99.

음이 교육사회학분야(10.2%)이다. 교육철학(6.0%), 교육과정(5.9%), 교육심리학(5.2%), 교육방법분야(4.5%)가 그 다음으로 비슷한 수준이며 교육사(3.4%), 교육평가분야(2.8%)가 적은 편에 속한다.

〈표 1〉 세부주제별 장서 현황(단위, 종)

주제 구분	교육 철학	교육사	교육 과정	교육 방법	교육 평가	교육 심리학	교육 사회학	교육 행정학	기타	계
동양서	201	254	350	165	49	88	328	356	1,208	2,999
서양서	123	69	120	91	56	105	208	415	848	2,035
계	324	323	470	256	105	193	536	771	2,056	5,034

교육학 단행본의 문헌연령별 분포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동양서의 경우 90년 이후에 간행된 자료가 전체의 10%를 조금 밑돌며 80년대에 간행된 자료가 전체의 60%에 이른다. 그리고 70년대에 간행된 자료는 25%에 이르며 73년 이전 자료는 보존서고에 비치되어 있다.

서양서의 경우 90년 이후에 간행된 자료가 0.5%를 차지하고 80년대에 간행된 자료는 약 30%에 이른다. 70년대, 60년대에 간행된 자료가 각각 25%, 23%를 차지하며 60년 이전 자료도 약 20%에 이른다.

〈표 2〉 단행본 문헌연령 분석

장서 발행연도	국 내 서		일본·중국서		서 양 서	
	종 수	비율(%)	종 수	비율(%)	종 수	비율(%)
21년이전	-	-	-	-	18	0.9
21~30	-	-	1	0.2	29	1.4
31~40	-	-	1	0.2	51	2.5
41~45	-	-	1	0.2	46	2.3
46~50	-	-	1	0.2	81	4.0

51~55	.	.	4	0.7	91	4.5
56~60	7	0.3	3	0.5	96	4.7
61~65	19	0.8	3	0.5	225	11.1
66~70	35	1.4	39	7.1	233	11.4
71~75	207	8.5	97	17.5	243	11.9
76~80	434	17.7	170	30.7	283	13.9
81~85	512	20.9	145	26.2	322	15.8
86~90	992	40.6	82	14.8	296	14.6
91~93	231	9.4	5	1.0	11	0.5
발행연도 확인불가	9	0.4	1	0.2	10	0.5
계	2,446	100	553	100	2,035	100

그리고 현재 부산대학교서관에 수집되고 있는 교육학 연속간행물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두 50종으로 동양서가 31종, 서양서가 19종 수집되고 있다. 동양서중에서 10종은 구입되는 것이고 21종은 기증되는 것이며 서양서는 모두 구입에 의해 수집되는 것이다. 동양서중에는 2종의 일본 학회지가 포함되어 있다.

<표 3> 연속간행물 현황

종류	구분	동양서 구입	동양서 기증	서양서 구입	서양서 기증	계
	학 회 지		3	6	14	
잡 지		7	1	4	.	12
기 타		.	14	1	.	15
계		10	21	19	.	50

2. 질적 현황

이용자의 수준을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진으로 나누어 현 장서의 유용성을 분석하여 부산대학교 교육학장서의 질적 현황을 살펴 보자.

학부생수준의 장서 유용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두학기분의 교수계획표를 토대로 학부생의 학습에 필요한 문헌리스트를 작성하였다. 1993년 2학기과 1994년 1학기의 전 개설과목 교수계획표를 수집하여 문헌리스트를 작성한 결과 동양서 137건, 서양서 21건의 단행본 교재및 참고문헌리스트를 확보할 수 있었다²³⁾. 이 리스트를 가지고 부산대학교도서관 소장 유무를 조사하여 <표 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4〉 학부 교수계획표 참고문헌리스트 검색율

	문 헌 수	검색문헌수	검 색 율 (%)
동 양 서	137	64	47
서 양 서	21	2	10
계	158	66	42

동양서는 137건중 64건이 검색되어 47%의 검색율을 나타내고 서양서는 21건중 2건이 검색되어 10%의 검색율을 나타낸다. 따라서 검색율에 의하면 부산대학교도서관 교육학장서는 학부생의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동양서는 반정도 지원하고 서양서는 10분의 1밖에 지원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학부 교육학장서 이용자로부터 동양서와 서양서를 막론하고 10권의 자료 요구가 제기 되었을때 부산대학교도서관은 4권 정도밖에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대학원수준의 장서 유용성은 대학원생들이 생산한 학위논문의 참고문헌리스트를 토대로 분석해 본다. 최근 5년간 교육학과 대학원에서 생산된 석 박사 학위논문은 모두 39건이다. 39건의 논문에 사용된 참고문헌 리스트를 모두 검색해볼 수도 있으나 편의상 석사논문 10건, 박사논문 5건을 특정 주제분야에 편중되지 않게 추출하여 검색해 보았다. 15건의 논문으로부터 작성된 참고문헌 리스트의 검색율을 단행

23) 전과목의 교수계획표를 수집하려다 보니 두학기 분의 교수계획표를 확보하게 되었다. 교육학과외 경우 개설 교과목이 매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두학기분의 교수계획표만 가지고도 학부생의 학습에 필요한 문헌 리스트를 충분히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과 연속간행물 그리고 학위논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먼저 단행본 인용문헌 건수와 검색율은 <표 5>과 같다.

<표 5> 석·박사 학위논문 인용 단행본리스트 검색율(석사/박사)

	인용문헌수	검색문헌수	검색율(%)
동양서	188/131	85/65	45/47
서양서	245/247	34/9	14/4
계	433/378	119/71	28/19

석사논문의 경우 동양서는 45%의 검색율을 보이고 서양서는 14%의 검색율을 보여 평균적으로 28%의 검색율을 나타낸다. 그리고 박사논문의 인용문헌은 동양서가 47%, 서양서가 4% 검색되어 평균 19%의 검색율을 나타낸다. 동양서에서는 석사, 박사 모두 45% 정도의 검색율을 보여 학부생의 교수계획표 리스트 검색율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양서에서는 석사의 경우는 14%의 검색율로 학부수준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박사의 경우는 4%로 믿기 어려운 검색율을 보여준다. 따라서 부산대학교도서관 교육학장서중 단행본은 석사 수준의 연구를 20%정도 지원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연속간행물은 대학원 수준의 연구를 어느정도 지원는지 살펴보자. 15건의 논문에 인용된 문헌수와 그 검색율은 <표 6>과 같다.

<표 6> 석·박사 학위논문 인용 연속간행물리스트 검색율(석사/박사)

	인용문헌수(중수)	검색문헌수	검색율(%)
동양잡지	102(57)/68(48)	43/42	42/62
서양잡지	163(56)/174(84)	15/25	9/14
계	265(113)/242(132)	58/67	22/28

석사논문의 경우 동양잡지는 57종에서 102건이 인용되었는데 43건이 검색되어 42%의 검색율을 나타내고 서양잡지는 56종의 잡지에서 163건이 인용되었는데 15건이 검색되어 9%의 검색율을 나타낸다. 동 서양 잡지를 평균해서 보면 석사논문에 인용된 문헌은 22%의 검색율을 나타낸다. 박사논문의 경우 동양잡지 48종에서 68건이 인용되어 42건이 검색되었고 서양잡지 84종에서 174건이 인용되어 25건이 검색되었다. 따라서 박사논문 인용문헌의 검색율은 동양잡지 62%, 서양잡지 14%로 평균 검색율은 28%에 이른다. 연속간행물의 경우 단행본 검색율과는 달리 박사논문에 인용된 문헌의 검색율이 석사논문에 인용된 문헌의 검색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부산대학교도서관 연속간행물은 석사, 박사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25%정도 밖에 지원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학위논문자료는 어느정도의 검색율을 보여 주는지 살펴보자.

〈표 7〉 석·박사 학위논문에 인용된 학위논문리스트 검색율 (석사/박사)

	인용 문헌수	검색 문헌수	검색율 (%)
인용된 석사논문	44/5	15/2	34/40
인용된 박사논문	7/6	2/2	29/33
계	51/11	17/4	33/36

〈표 7〉에서 보는 것처럼 학위논문은 많이 인용되지 않아 석사논문이 모두 49건, 박사논문이 모두 13건 인용되었다. 그중 석사논문은 17건 검색되어 35%의 검색율을 나타내고 박사논문은 4건이 검색되어 30%의 검색율을 유지한다. 따라서 교육학과 대학원생들은 논문을 쓰기위해 필요한 학위논문의 70% 정도는 부산대학교도서관 외부에서 구한다고 할 수 있다.

교수 수준의 장서 유용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1991부터 1993까지 교육학과 교수진이 생산한 연구논문의 참고문헌 리스트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참고문헌은 모두

37건 이었다. 그중 15건의 논문을 특정 주제분야에 편중되지 않게 추출하여 검색율을 조사하였다.

먼저 단행본의 경우 <표 8>에서 보는 것처럼 동양서가 86건 인용되어 31건이 검색되었고 서양서가 237건 인용되어 21건 검색되었다. 따라서 동양서의 검색율은 36%, 서양서의 검색율은 9%이며 평균 검색율은 16%이다.

<표 8> 교수 연구논문 인용 단행본리스트 검색율

	인용문헌수	검색문헌수	검색율 (%)
동양서	86	31	36
서양서	237	21	9
계	323	52	16

학부 수준의 단행본 검색율과 대학원 수준의 단행본 검색율에 비해 교수수준의 단행본 검색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속간행물의 검색율은 <표 9>과 같다.

<표 9> 교수 연구논문 인용 연속간행물리스트 검색율

	인용문헌수 (잡지종수)	검색문헌수	검색율 (%)
동양서	25 (18)	31	52
서양서	103 (55)	11	11
계	128 (73)	24	19

교수 연구논문에는 연속간행물 동양서가 25건, 서양서가 103건 인용되어 각각 31건, 11건씩 검색되었다. 동양서는 52%의 검색율을 나타내고 서양서는 11%의 검색율을 나타내어 평균 19%의 검색율을 나타낸다.

Ⅲ. 장서구성의 영향요인

위에서 살펴본 교육학 장서는 복합적인 도서관 내 외적 요인과 장기간의 시간적 흐름 속에서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즉, 도서관의 모기관인 대학의 정책, 도서관 자체의 정책, 장서개발 담당 사서의 역할, 도서 구입 예산의 배정, 장서개발지침의 유무와 수준, 이용자 집단의 요구와 행태 등의 요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재의 장서구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는 그러한 영향요인들을 도서관 요인과 이용자 요인으로 크게 나누어 살펴 보려고 한다. 도서관 장서 구성과 관련된 외적 요인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현재 부산대학교도서관의 장서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도서관 요인

(1) 장서개발규정

먼저 장서개발의 기준이 되고 지침이 되는 장서개발규정을 살펴보자. 부산대학교 도서관에는 장서개발지침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현재의 장서구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주고 있는가. 현재 부산대학교도서관에 장서개발지침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말이 부산대학교도서관에서는 아무런 기준이나 계획 없이 자료를 선정하고 구입한다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단지 장서개발을 위한 항구적이고 포괄적이며 권위있는 스테이트먼트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부산대학교도서관의 장서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정은 두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부산대학교 규정집에 포함되어 있는 ‘부산대학교도서관규정²⁴⁾’이다. 이

24)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도서관규정”, 규정집, 부산: 부산대학교, 1993, pp. 445-453.

규정은 1963년 9월 1일 제정되어 1988년 9월 5일 최종 개정된 것으로 모두 10장 3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개의 장에서 도서관 자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 자료와 관련되어 있는 두개의 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제3장 도서관 자료의 구분 및 관리²⁵⁾

제7조 (도서관 자료의 구분) 본 도서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귀중자료
2. 특수자료
3. 참고자료
4. 일반자료
5. 고도서
6. 정기간행물
7. 비도서 자료
8. 각종 학위논문 및 기타자료

제8조 (자료의 관리범위) 본 도서관이 관리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본 도서관 및 분관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자료
2. 본 대학교 교내 각기관에 비치하고 있는 각종 도서관 자료

제4장 자료의 수집

제9조 (수입 자료의 구분) 본 도서관이 수입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구입자료
2. 수증자료
3. 교환자료
4. 편입자료

제10조 (문고설치) 독지가로 부터 장서를 기증 받았을 때에는 특별히 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 구입의 제한) 본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자료의 수량을 기본 교재에

25) 부산대학교, 위외책, pp. 446-447.

한하여 20부까지, 기타 자료는 10부까지 구입할 수 있다.

제12조 (간행물 납본의부) 본 대학교에서 발간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1. 본 대학교의 교내 각기관에서 발간되는 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은 5부 이상 단, 교환 자료용은 250부 이상.
2. 본 대학교 재직 교수의 저서는 5부까지 납본을 요청하여 실비 제공을 할 수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3장은 도서관 자료의 구분과 관리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도서관 자료를 형태와 용도, 가치에 따라 8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도서관에서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제8조 2항의 '교내 각기관에 비치하고 있는 각종 도서관 자료'라는 구절이다. 이 구절에 의하면 자료의 소재는 도서관 이외의 장소이지만 소속은 도서관으로 되어 있는 자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용자가 한정될 수밖에 없는 자료를 이용자가 집중되어 있는 학과나 기관에 비치하여 이용하도록 한 것을 가리킨다.

제4장은 자료의 수집에 관한 규정으로 먼저 제9조에서 수입자료를 4가지로 나누어 놓고 있다. 그중 '편입자료'라는 항은 70년대 이전에 각 학과에서 학과의 실험 실습비를 가지고 학습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였는데 이를 어떤 계기로 도서관 자료에 편입시킨 것을 일컫는다.²⁶⁾ 이것은 부산대도서관의 장서가 성장해온 과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제10조는 개인으로 부터 기증받은 장서는 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현재 도서관에서는 소장공간과 자료의 유용성 문제로 개인장서를 기증받을때 문고설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현실과 맞지 않는 사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제11조는 자료 구입에서 복본수에 관한 규정으로 교재 자료는 20부까지 기타자료는 10부까지 복본을 구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재 도서관의 자료 구입관행은 교재

26) 이상재 주무사서와의 인터뷰, 1994년 4월 28일 오전 11시, 부산대학교도서관 수서실.

및 교양자료의 경우 2권의 복본을 구입하고 있다. 이 조항도 전혀 비현실적인 사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서와의 면담에서 이것이 과거에는 실재하던 관행임을 알 수 있다.

…80년대 이전에는 학생들이 교재 사기가 어려워 도서관에서 20권, 30권씩 교재 도서를 구입해 주기도 했다²⁷⁾

제12조에는 본교의 교수 저작물이나 각기관에서 간행한 간행물에 대한 납본 규정으로 현재의 기준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본교 대학원에서 생산한 학위 논문을 교환자료로 납본 받을 때 석사학위논문은 12부, 박사학위논문은 13부로 제한하고 있으며 본교 재직 교수의 저작물은 3부까지 구입하고 있다²⁸⁾.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산대학교 규정집의 부산대학교도서관규정은 형식적이며 비현실적인 자료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자료관련 규정은 제정된 이후로 거의 개정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여러 부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서들도 이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는 이 규정이 전혀 현실적인 규정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대학교도서관의 장서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다른 하나의 규정은 수서계획(안)이다. 이것은 책정된 도서구입예산에 근거하며 1년 단위로 작성되어 장서개발의 지침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1993년도 수서계획(안)²⁹⁾을 보면 수서방침과 수서방법이 두페이지에 걸쳐 기술되어 있고 '93 국별 도서비(단행본) 배정계획(안)'과 '93 자료별 도서비 배정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1993년도 부산대도서

27) L사서와의 인터뷰('94. 4. 14. 오후4:00-5:00, 부산대학교도서관 수서실) 이하의 인용에서는 일시와 장소를 생략한다.

28) 부산대학교도서관, 석박사학위논문 제출 권수 조정(공문), 1992. 1. 29; 부산대학교도서관, 본교 교수의 저작물 통보 의뢰(공문), 1993. 3. 12; 부산대학교도서관 수서실, 1993년 수서계획(안), 1993. 4. 18.

29) 1993년도에는 도서구입 예산의 삭감과 증액에 따라 4월, 6월, 11월 세번에 걸쳐 수서계획(안)이 만들어 졌다. 이 세개의 수서계획(안)은 도서비 배정계획 부분만 각기 다르고 기술부분은 모두 동일하다.

관 수서계획(안)을 기술부분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93년 수서계획(안)

I. 수 서 방 침

1. 대학의 지표에 부합되는 자료 확보

- ① 자료의 국제화 → 대학의 국제화
- ② 연구자료 수집의 활성화 → 대학원 중심대학
- ③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자료수집 → 지역중핵대학 역할

2. 대학도서관의 목적과 기능에 알맞는 자료 확보

- ① 학과 핵심자료와 교수연구용자료 수집
- ② 학생 학습자료 및 교양자료 수집

II. 수 서 방 법

1. 구입자료

가. 연구용 및 전공 교재자료

(1) 외국자료

(가) 추천자: 학문의 전문성과 자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수 개개인
추천

(나) 추천방법: 각 학과의 배분금액범위 내에서 학과교수의 협의하에 도서추천카드에 교수 개인별로 추천하되, 학과장은 이를 모아 도서추천집계표와 함께 도서관으로 보낸다.

(다) 추천시기: 매분기(3, 6, 9, 11월) 15일까지 추천을 마감

(라) 구입비 배분원칙: 연구 및 교재자료 구입비는 각 학과 단위로 배분(학과당 1,000,000원 교수1인당 15만원)하여 배분된 금액 내에서 추천을 받아 구입한다.

(2) 국내자료

(가) 교수의 교과목 수행을 위한 교재도서는 교수가 외국자료 배분 금액과는 별도로 교수당 3종 이내 연중 수시로 추천을 하며, 도서관에서는 이를 1~3권까지 구입한다.

(나) 교수계획표에 의한 교재도서는 13권까지 구입할 수 있다.

나. 교양자료

각종 서평지를 통하여 수서실에서 선정하여 수시로 12권까지 구입한다.

다. 참고자료

참고자료는 각종 서평지를 저본으로 수서실과 참고실에서 선정하여 수시로 구입한다.

라. 서지자료

서지자료는 각종 서평지를 저본으로 수서실과 서지자료실에서 선정. 개발하여 수시로 구입한다.

마. 비도서자료

CD-ROM, Microform, Video tape등을 연차적으로 개발한다.

바. 특수자료

민족문제연구소의 추천을 받아 1,2학기 구분하여 개발한다.

사. 학생요망자료

도서관 내에 비치된 학생요망함을 통하여 추천받아 사서의 검토후 학과의 학생수 및 자료의 성질에 따라 13권까지 수시로 구입한다.

아. 기타

(1) 본 대학교 교수의 저서는 3권까지 구입할 수 있다.

(2) 본 대학교 출판부에서 발간된 자료는 3권을 구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외국서적의 리프린트판은 구입하지 않는다.

(4) 다량판매 목적으로 출판된 Paper Bound (아시아판, Textbook)장정의 자료는 구입하지 않는다.

자. 외국자료구입방법

외국에서 출판된 모든 자료는 외국에서 직접 수입한다.

2. 기증자료

정년퇴임교수, 독지가 및 국내외의 학술연구단체로부터 본교 도서관의 장서 구성상 필요로 하는 자료는 기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교환자료

본교에서 발간되는 자료를 국내외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관에서 발간되는 자료와 교환함으로써 본교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4. 구입학술잡지

구입학술지는 계속 구독을 원칙으로 한다. 단, 既구독잡지 중 해당학과에서 다른 학술잡지와 교체를 원할 때는 既구독잡지 가격 범위내에서 추진한다.

수서계획(안)의 기술 부분은 크게 수서방침과 수서방법으로 나뉘어 진다. 수서방침에는 대학의 지향에 걸맞는 자료 수집 방침과 대학도서관의 목적과 기능에 따른 자료 수집 방침이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다. 수서방법 부분에서는 자료를 구입자료, 기증자료, 교환자료, 구입학술지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는데 기증자료, 교환자료, 구입학술지에 대한 기술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다소 형식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입자료에서는 연구용 및 전공 교재자료에 관한 규정이 가장 포괄적이며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는 전체 장서중에서 교수추천에 의해 구입되는 연구 및 교재자료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 분야의 자료 구입에 투입되는 예산의 비중과 자료선정자로서 교수진의 역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수서계획(안)에는 그 이외의 구입자료에 관한 선정방법과 구입방법에 관해서도 여러 항에 걸쳐 간략하게나마 기술되어 있어 자료 선정과 구입의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수서계획(안)이 부산대학교와 같은 규모의 도서관 장서개발지침으로는 여러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 이 수서계획(안)은 예산 집행과 도서 추천원칙 등 업무 집행의 측면에 대부분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현재의 장서 상황이나 이용자

상황에 대한 기술, 그리고 자료 선정의 원칙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사실은 수서계획(안)을 만든 사서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규정집의 도서관규정은 총론적 성격의 규정이며 수서계획(안)은 수서방법과 예산배정관계등 행정적인 측면의 내용이 중심이다³⁰⁾

수서의 방침과 수서의 방법및 자료비 집행방법, 그리고 예산배정 사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외국자료의 경우는 추천자 및 추천시기, 추천방법, 추천금액배정에 치우쳐 있고 국내자료의 경우에도 자료적 측면은 제외된채 누가 어떤 방법으로 구입할 것인가 하는 운영적 측면에 치우쳐 있어 장서의 질적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침이 될만한 문구는 거의 없다고 본다³¹⁾

그리고 현실적으로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장서개발지침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서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첫째는 장서개발에 대한 사서의 인식부족과 노력부족 때문이고, 둘째는 자료구입비의 대부분이 교수추천에 의존하여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며 셋째는 실질적으로 현재의 인원으로는 장서개발에 투입될 인력이 없는 실정이고 수서업무의 대부분이 구입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³²⁾.

대학사회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선정권이 거의 대부분 교수들에게가 있고 인력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장서개발을 전담할 인력구성이 불가능한 탓이라 생각한다³³⁾

이상의 분석과 진술을 종합해 보면 수서계획(안)은 부산대학교도서관 장서개발의

30) L사서와의 인터뷰

31) K사서와의 인터뷰('94. 4. 18, 오후4:00-5:00, 부산대학교도서관 수서실) 이하의 인용에서는 일시와 장소를 생략한다.

32) K사서와의 인터뷰

33) C사서와의 인터뷰('94. 4. 18, 오후4:00-5:00, 부산대학교도서관 수서실) 이하의 인용에서는 일시와 장소를 생략한다.

전 범위를 포괄하는 장서개발지침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체계적인 장서구성을 위한 도서관(사서)의 의도가 표현되어 있는 권위있는 장서개발지침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 사서의 진술대로 '장서의 질적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침'이 되지 않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여러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서계획(안)은 현실적으로 가장 험있고 유용한 장서개발지침으로 활용된다. 장서개발의 지향을 제시하고 자료의 선정방법과 구입방법을 규정하여 사서로 하여금 장서개발 도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사서의 업무에 대한 규정적인 토대가 되어 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두가지의 부산대학교도서관 장서개발 관련 규정은 나름대로의 한계 속에서도 일단 규정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더욱더 험있고 현실적으로 유용한 장서개발지침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개선이 있어야 한다. 특히 두가지 규정에서 동일한 내용을 두고 서로 일치하지 않는 조항이 존재한다는 것은 통합적인 장서개발지침의 필요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³⁴⁾.

(2) 사서

사서는 도서관 장서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사서의 자료 선정권과 자료 선정량을 살펴보면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993년도 수서계획(안)을 보면 사서에게 선정권이 있는 것으로 명시된 자료 항목은 교재자료, 교양자료, 참고자료, 서지자료 등으로 다양한 자료에 걸쳐 사서가 선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연구용자료는 추천자가 교수로만 되어 있어 사서의 선정 권한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실제 사서는 어느 정도의 자료를 선정하는지 살펴보자. <표 10>은 1993년도에 부산대학교도서관에서 구입하기 위해 선정한 자료의 현황이다³⁵⁾.

34) 두가지 규정에서 일치하지 않는 조항으로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본교 교수 저작물에 대해 도서관 규정에는 '5부까지 납본을 요청하여 실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수서계획(안)에는 '3권까지 구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런 불일치 조항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단적으로 두가지 규정이 유기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5) 이 현황은 부산대학교도서관 수서과의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선정품의서질'로부터 뽑은 통계이다.

〈표 10〉 '93년도 자료선정 현황(단위, 종(권))

구분 종류	교수추천	사서선정	학생추천	기 타	계
국내서	492 (659)	1166 (2533)	227 (487)	215 (744)	2100 (4420)
일서·중국서	558 (692)	-	3 (4)	77 (90)	638 (786)
서양서	2809 (2840)	-	256 (263)	4 (10)	3069 (3113)
계	3859 (4188)	1166 (2533)	486 (754)	296 (844)	5807 (8319)

위의 표를 보면 사서가 선정한 자료는 전체의 20%밖에 되지 않는다. 기타에 포함된 참고자료(계속본, 일회성) 및 서지자료 등을 사서선정 자료로 포함 시키더라도 25%밖에 되지 않는다. 교수추천도서가 66%를 넘는다는 사실과 비교해 보면 사서의 자료 선정량은 교수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서의 자료 선정은 전적으로 국내 교양자료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서계획(안)상으로는 여러가지 종류의 자료를 사서가 선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자료 선정량은 외국 연구도서만을 주로 선정하는 교수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현재 사서의 역할이 장서를 개발하는 일보다는 교수의 추천도서를 구입하는 업무에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상황에서 사서의 의도적인 장서개발이 실현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서들의 생각을 면담을 통해 알아보자.

질문: 교수추천제도 하에서 사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현실적으로 장서개발 업무보다 구입 업무같은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³⁶⁾.

과거에는 추천자료를 거의 삭제없이 전량 추천받아 구입하는 역할만 했다. 그러나 현재에는 추천자료의 취합외에 최신성이 결여된 자료에 대한 추천 타당성 검토 및 조정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교수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선정할 수

36) L사서와의 인터뷰

있도록 최신 서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³⁷⁾.

선정권이 대부분 교수에게 가 있으므로 사서의 역할은 아주 미약한 편이다³⁸⁾.

질문 : 궁극적으로 도서관 장서개발의 담당자라고 할 수 있는 사서의 입장에서 이런 현실적인 사서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은 현실적으로 교수의 연구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교수가 원하는 자료를 구입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³⁹⁾.

교수는 자기 전공분야를 깊이 있게 알기 때문에 연구도서와 교재도서를 선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교양, 참고도서는 폭넓게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교양도서, 참고도서는 사서가 선정하는 것이 옳다. 이용자의 요구를 가장 폭 넓게 파악하는 사람은 사서다⁴⁰⁾.

궁극적으로 장서구성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사서다. 선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⁴¹⁾.

자료 선정은 사서의 고유 권한인데 사서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가슴아픈 현실이다. 사서들이 전문직으로서의 위치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⁴²⁾.

질문 : 현실적으로 사서가 외국자료를 선정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부족이 가장 큰 이유이다⁴³⁾.

전공분야 자료선정은 사서가 할 수 없다. 구입 업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⁴⁴⁾.

37) K사서와의 인터뷰

38) C사서와의 인터뷰

39) L사서와의 인터뷰

40) Y사서와의 인터뷰('94. 4. 14. 오후4:00-5:00, 부산대학교도서관 수서실) 이하의 인용에서는 일시와 장소를 생략한다

41) K사서와의 인터뷰

42) C사서와의 인터뷰

43) L사서와의 인터뷰

44) Y사서와의 인터뷰

먼저 주제배경이 없다는 것과 언어적인 취약성이 있다는 것이다⁴⁵⁾.

일차적으로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의 미비가 적극적인 선정에 대한 저해요인이 될 것이고 이차적으로 대학사회라는 특수성이 작용한 탓이라고 본다⁴⁶⁾.

질문 : 장서를 체계적으로 망라적으로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교수추천 제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앞에서 얘기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서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⁴⁷⁾.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교수들이 도서관 자료 혹은 자료추천 자체에 별 관심이 없으므로 필요에 의해서라기 보다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대충 신청하는 경향이 있다. 추천기간에 즈음하여 조교나 대학원생이 대신 추천하는 경우도 많고 본인이 신청해서 이미 도서관에 들어온 책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⁴⁸⁾.

물론 많이 있다. 일관된 의도성을 가질 때에야 장서의 체계적, 망라적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현 교수추천제도 하에서는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될 가능성이 많아 장서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본다⁴⁹⁾.

위의 면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현재 사서는 주로 교수 추천도서를 구입하는 업무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자료 선정에 사서가 더 많이 더 깊이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사서가 연구도서를 선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말한다. 현재의 관행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사서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장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사서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자료

45) K사서와의 인터뷰

46) C사서와의 인터뷰

47) Y사서와의 인터뷰

48) L사서와의 인터뷰

49) C사서와의 인터뷰

선정자로서의 약한 부분을 교수와의 협조로 메꿔나가면서 결국에는 사서가 폭넓은 자료 선정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자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며 현재의 장서 상황과 이용자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자.

교양도서의 경우 사서의 재량에 의해 선정된다⁵⁰⁾.

성문화된 기준은 없고 선정사서들의 합의하에서 선정하고 있다.

즉 대학도서관의 수준에 맞는 자료, 대학생들의 교양에 도움될 수 있으며 반드시 습득해야할 지식을 담고 있는 자료와 같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다⁵¹⁾.

기존의 장서를 평가 한 후에 장서를 개발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도서관 장서는 너무 열악해서 평가할 수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⁵²⁾.

국내자료의 경우 선정시 이용자에 대한 고려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의 장서구성 상태를 가능한 고려하여 선정하려고 한다. 예를들면 구미소설의 경우 프랑스소설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면 그 밖의 나라것을 선정하려고 노력한다⁵³⁾.

위의 면담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사서들은 자료 선정에 있어서 어떤 성문화된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으며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 자료선정기준이 객관화된 주관이라고 한다면 현재 사서의 자료선정기준은 주관화된 객관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장서상황과 이용자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선정하려고 하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자료를 선정하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들은 자료선정자로서 사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면담을 통해 알아보자

50) L사서와의 인터뷰

51) C사서와의 인터뷰

52) L사서와의 인터뷰

53) C사서와의 인터뷰

과도기적으로 교수추천이 필요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도서관이 체계적으로 장서 수집을 해야 된다. 교수들은 포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서가 전체적인 경향에서 잘 유지하면서 체계적인 장서 구성을 해야한다. 서양에서는 교수가 자료추천을 전담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사서의 자료 식별력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전체를 알면서 전문분야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 사서의 임무라고 생각한다⁵⁴⁾.

자료를 교수가 추천하는 것과 사서가 선정하는 것을 비교하면 두 가지 모두 일장 일단이 있다고 생각한다. 교수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신청하긴 하는데 다소 이기적인 요구에서 할 수도 있다. 가령 자기만 보는 특수한 분야의 책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렇다. 사서가 자료를 선정 하면 전문분야의 자료 개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에서는 사서가 자료수집을 전담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편중되지 않는 자료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예산이 부족하고 둘째는 사서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⁵⁵⁾.

자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 전문분야의 자료는 교수나 대학원생이 추천하는 것이 자료의 타당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양자료는 사서가 수집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⁵⁶⁾.

교수들은 전문분야 도서는 교수들이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그 이외의 자료 선정권과 전체적인 자료 선정권은 사서(도서관)측에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체계적인 장서 수집'의 길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사서가 전문분야의 자료를 선정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의 부족때문이라고 생각하

54) J교수와의 인터뷰

55) H교수와의 인터뷰

56) C교수와의 인터뷰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서진은 나름대로 전문분야의 자료 선정에 개입하고 있다. 자료 추천을 위한 선택정보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자료 선정에 개입하는 것이다. 선택정보서비스의 의미에 대해 사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선택정보자료의 제공은 도서관 밖의 자료선정자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선택정보를 제공하므로써 장서구성의 균형과 질을 확보하게 하고, 자료 선정에 사서가 간접적으로나마 개입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⁵⁷⁾.

자료의 선정자는 주제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도서관 장서구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서지자료에 대한 지식과 활용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도서관 자료의 선정이 그 주제분야에 있어서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교수가 아니라 사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은 바로 사서가 자료와 서지도구의 전문가이고 도서관 장서구성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좋은 서지자료의 활용은 주제전문사서가 없는 우리의 도서관 상황에서 볼 때 좋은 장서구성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한다⁵⁸⁾.

사서들은 선정도구를 제공하여 좋은 자료의 선정을 유도하는 선택정보서비스를 전문 지식이 부족한 사서가 현실적으로 도서관 자료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특정 전문 주제분야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사서직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개입방법은 한국적 현실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현재적 의미로 볼때 서지도구의 활용은 사서의 능력을 배가해주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면 현재 사서들은 어떤 선정도구를 선택자료로 제공하며 직접 자료 선정을 하는데 활용하는지 들어보자.

57) K사서와의 인터뷰

58) L사서와의 인터뷰

외국자료의 경우는 비교적 선정자료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각 출판사에 의뢰해서 받은 출판사 카탈로그가 주종을 이루며 앞으로는 전문 학술지의 서평 및 BIP (Books In Print), Choice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전에 국내 수입대행업자들이 제공하는 수입도서목록(주로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가격이 서지정보의 전부)에 의존해온 대부분의 교수들이 현재는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신속하며 자료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실린 선택정보자료에 의존하여 자료를 추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뿐만아니라 일부 교수들은 더욱 더 적극적으로 특정 출판사목록 및 특정 부제분야에 대한 선택 정보자료를 요구해 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⁵⁹⁾.

국내서를 선정할 때는 주로 출판저널과 같은 출판정보지와 신문의 서평란을 많이 참고 한다. 그리고 각종 출판사에서 생산한 자료 안내 목록을 취합해서 선정에 이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세하게 자료를 소개하는 출판정보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소개되는 자료의 범위도 망라적이지 못해서 선정도구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⁶⁰⁾.

국내서의 경우 신문의 서평란이나 도서안내지를 참고로 해서 자료를 선정하는데 그런 서지도구들을 크게 신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출판사 목록들은 일방적으로 자기 출판물들을 선전하는 수준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선정 도구를 이용해서 선정을 하더라도 선정자의 주관이 많이 개입될 수 밖에 없다. 공신력 있는 서평지나 출판정보지를 입수하고 개발하는 것이 좋은 장서개발을 위해서는 급선무라고 생각한다⁶¹⁾.

외국자료의 경우 출판사 목록이 주로 이용되는데 그 외에도 국내서에 비해 선정 도구가 다양하며 비교적 신뢰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한다. 국내자료의 경우 출판정

59) K사서와의 인터뷰

60) L사서와의 인터뷰

61) C사서와의 인터뷰

보지나 서평을 주로 참고로 하면서 출판사 목록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객관적이며 포괄성 있는 선정도구가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따라서 선정도구를 선정하는 사서의 안목 또한 필요한 것이다. 공신력 있는 선정도구를 풍부하게 가지고 자료를 선정할 때 자료 선정자로서 사서는 힘을 발휘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우수한 장서 구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사서들은 현재 실시하는 선택정보서비스는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으며 좀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재 서지정보의 제공이 주로 수집가능한 구미 출판사의 출판목록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교수진의 자료 선정이 전문 서평지에 의해 엄선되지 않은 많은 정보속에서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 서평지 중심의 선택정보자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선택정보제공의 의미가 자료선정에 사서가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효율적이고 질 높은 장서구성을 유도하는데 있을뿐 사서가 직접적으로 책임있는 장서개발을 하지 못하는데 궁극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나 교수진이 전체 장서에 대한 이해없이 개인적이고 일회적인 요구에 따라 자료를 추천하는 경향은 선택정보제공 서비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다⁶²⁾.

현재 출판사로부터 목록을 받으면 관련 학과에 전달해서 교수들이 돌려가면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입장에서는 교수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관련 주제분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수진이 필요로 하는 출판목록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가 어려우며 관련 학문분야의 범위를 어느정도로 제한해서 선택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가령 교육사회학을 전공하는 교수는 교육학 뿐만아니라 사회학관련 출판정보지도 필요로 하는데 사회학 관련 서지자료는 모두 사회학과로 보내지는데 지금의 실정이다. 그리고 생물학

62) K사서와의 인터뷰

관련 서지자료를 생물학 관련학파에만 보낼 것인지 아니면 약학대나 의대쪽에도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현재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서지자료의 포괄적인 활용을 위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⁶³⁾.

최종적으로 도서관 장서에 책임을 지게 되는 사람은 사서이다. 그런데 대학사회의 특수성, 사서의 전문적 자질과 의식 부족, 여러가지 제도적 미비로 인해 사서는 장서 개발의 주체적인 위치에 서지 못하고 보조적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사서가 장서개발에 깊이 개입하지 않는 구조적 현실이 수준 낮은 장서 구성에 대한 사서의 책임을 면해 줄 수 있을까. 오히려 책임을 방기 했다는 더 큰 불명예를 짊어 지게 되지 않을까.

(3) 수증자료

다음은 그 양에 있어서나 가치에 있어서 구입자료에 비해 결코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되는 수증자료에 대해 살펴보자. 수증자료도 구입되는 자료 못지 않게 높은 학술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 많이 있다. 특히 정부기관에서 간행하는 정부간행물이나 각종 연구소에서 간행하는 연구보고서 같은 자료들은 쉽게 구할 수 없다는 점도 그 가치를 높이는데 한몫한다. 그런 면에서 자료 수증업무도 구입 업무 못지 않게 중요한 장서개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수증자료는 그 성격에 따라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료의 간행처에서 직접 기증하는 것이고 둘째는 퇴직교수나 저술가들이 자기의 장서를 기증하는 것이며 셋째는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는 것이다. 부산대학교도서관의 경우 70년대까지는 구입자료와 수증자료의 비율이 50 : 50정도 였으나 1980년대 이후 학위논문의 등록으로 수증자료가 더 많아 지게 되었다⁶⁴⁾. 그런데 이 수증자료의 문제는 대학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63) L사서와의 인터뷰

64) L사서와의 인터뷰

않은 자료들이 기증될 경우에 제기된다. 실제 과거에는 수증자료의 가치와 대학도서관 장서로서의 적합성보다는 장서량을 늘린다는 생각만으로 기준없이 자료를 기증받아 등록하는 일이 있었다.

도서관의 서양자료실을 누비다가 만나게 되는 책들 중에는 50, 60년대 서양(미국)의 어느 중, 고등학교 도서관의 장서인과 대출기록이 그대로 붙어 있는 것들도 있다.

사실 과거에는 장서량을 늘리기에 급급해서 기증되는 자료를 모두 받아들였었다. 그런데 그 자료들중에는 대학도서관장서로서 부적합한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령 과거에 아시아재단, UNKRA, U. S. I. S 등의 기관으로부터 많은 책을 기증 받았는데 그 자료들 중에는 외국의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재로 사용하던 책들도 많이 섞여 있었다. 당시에는 장서구성의 개념보다는 권수를 늘리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다⁶⁵⁾.

이와 같은 사서의 진술은 수십년전 미국의 중, 고등학교 도서관 장서가 지금 한국의 대학도서관 장서로 버젓이 행세하는 불가사이의 내막을 조금은 이해하게 해 준다. 책의 표지 안쪽에서 FRANKLIN HIGH SCHOOL, LINCOLN JR. HIGH SCHOOL, STOCKTON HIGH SCHOOL, OGDEN CITY SCHOOLS, DOISE PUBLIC SCHOOLS, UTAH PUBLIC SCHOOL 등의 학교 이름과 J. Shaffer, W. Walker 등의 대출자 이름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부산대학교도서관의 이용자들은 어떤 심리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궁금하다.

개인 장서를 기증받는 경우에도 사서를, 궁극적으로는 이용자를 황당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기증자의 현명하지 못한 의도와 그에 따른 자료의 저급성에서 기인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한 사서의 진술을 들어보자.

65) L사서와의 인터뷰

어떤 경우에는 퇴직교수나 장서가들이 개인장서를 기증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 그들은 대체로 집을 옮기거나 새로 지을 경우에 장서를 폐기할 목적으로 도서관에 기증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기증되는 책을 보면 별 가치도 없는 책들이 대부분이다. 가치있는 책은 추려내고 나머지를 청소하는 기분으로 도서관에 기증하는 것이다⁶⁶⁾.

대학도서관과 대학도서관 이용자에게 시혜(施惠)의 목적으로 기증된 일부 자료들이 결과적으로 대학도서관 장서의 수준을 떨어뜨리거나 이용자를 좌절하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장서를 기증하는 것이 단순한 적선(積善)의 기본으로 될 수는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도서관의 입장에서 수증자료의 선별작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수증자료의 중요성과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한 부산대학교도서관에서는 좀더 신중한 자료수증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증자료를 모두 받아들여 등록한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자료의 가치와 이용가능성등을 고려하여 예전에 비해 훨씬 까다롭게 자료를 기증받고 등록하고 있다. 아시아재단에서 기증하는 자료는 이제 우리도서관의 수준에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91년부터는 일절 받지 않고 있으며 퇴직교수나 개인장서가의 기증자료도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한 후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기증되어오는 자료들중 우리도서관 장서로 부적합하거나 불필요한것은 다른 도서관에 재기증하기도 한다. 최근 대학평가제에 대비하여 일부 대학도서관에서 무분별하게 자료를 기증받는다고 들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도서관 장서의 질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⁶⁷⁾.

입수도서의 반 이상이 수증자료인 상황에서 수증업무의 잘못은 도서관 장서에

66) L사서와의 인터뷰

67) L사서와의 인터뷰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의 장서가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능동적인 수증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중요한 장서개발 업무의 한쪽 바퀴를 튼튼히 하는 것과 같다. 어떤 사정으로 자식을 입양하려고 한다면 지나칠 정도로 신중하게 고를 것이며 입양을 한 후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게 될 것이다.

(4) 자료구입예산

이제 자료구입예산을 살펴보자. '1993년도 자료별 예산집행 사항⁶⁸⁾'을 보면 단행본 구입비가 전체의 19.5%, 연속간행물 구입비가 75%, 기타가 5.5%로 나타난다. 단행본 구입비는 다시 국내자료 21.8%, 동양자료(일서 중국서) 10.1%, 서양자료 67.7%, 특수자료 0.4%로 구분된다. 국내자료의 구입은 대체로 사서 선정에 의한 구입이고 동양자료와 서양자료 구입은 교수추천에 의한 구입이다. 국내자료 구입비 중 교수추천에 의한 구입비를 고려한다면 단행본 구입비의 80% 이상을 교수추천도서 구입에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교수추천도서가 주로 외국도서 이므로 국내서에 비해 도서 가격이 높고 운송비 등이 포함되어 권당 도서구입비⁶⁹⁾가 높아 교수추천도서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교수들은 자기들이 배정받은 추천금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자.

내 경우에는 너무 바빠서 그 금액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편이다. 그리고 추천하는 도서가 늦게오면 김이 다 빠져 버리기 때문에 잘 추천을 안하는 편이다

70)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학교의 예산 사정을 이해하고 있다⁷¹⁾.

68) 부산대학교도서관 수서실, 1993년도 수서계획(안), 1993. 6.

69) '1993년도 자료별 예산집행사항'에서 단행본의 권당 구입비를 산출해 보면 국내자료 11,670원, 동양자료(일본서, 중국서) 35,190원, 서양자료 41,760원임을 알 수 있다. 부산대학교도서관 수서실, 1993년도 수서계획(안)

70) J교수와의 인터뷰

71) H교수와의 인터뷰

나의 경우는 금액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 문제보다는 서지정보가 부족해서 추천할 좋은 책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⁷²⁾.

이들은 모두 배정된 금액이 부족하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오히려 다른 이유로 이 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서들도 교수에게 배정되는 도서추천금액이 턱없이 적다고 이야기 한다.

학술잡지비와 국내 참고자료 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교수, 학과별로 나눈다. 최근 2년 전까지 6, 7년동안 예산이 동결되어 있어서 자료 구입비가 턱없이 부족했다. 교수들은 항상 금액이 적다고 불만이다⁷³⁾.

기본적으로 자료구입비가 턱없이 부족하므로 연구와 교수활동을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며 도서관으로부터 자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교수들의 경우 불만이 많다⁷⁴⁾.

어떤 경우는 외국도서 두권만 사도 추천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교수들의 불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⁷⁵⁾

사서진과 교수진 모두 배정 금액이 부족하다고 이야기 하지만 단행본 구입 예산의 80% 이상이 교수들의 추천도서를 구입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현실적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교수들은 보다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도서 추천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서진은 추천 금액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이 조정 작업은 적절한 서지 도구를 제공하여 필요가 적은 도서의 구입을 억제하는 것과 배정 금액의 이용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여 통보하는 것, 그리고 구입도서에 대한 통보 작업을 추천자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모든 연구자들에게 해주는 것으로 가능할 수 있다.

72) C교수와의 인터뷰

73) J교수와의 인터뷰

74) K사서와의 인터뷰

75) C사서와의 인터뷰

2. 이용자 요인

(1) 교 수

결국으로는 학생 그룹과 함께 대학도서관의 양대 이용자 그룹의 하나이면서 현실적으로는 학생 그룹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수 요인에 대해 살펴보자. 교수진은 대학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가장 큰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은 도서관의 자료와 관련하여서도 으레히 큰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도서관도 그들에게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교수진이 수행하는 연구와 교수의 중요성, 그리고 그에 따른 자료 요구의 우선권에 따른 배려라고 볼 수 있다.

우선 교수들은 학문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자료 추천권을 부여 받고 있다. 그들은 개인배정금 15만원과 학과 배정금 100만원중 일부의 범위 안에서 외국자료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⁷⁶⁾. <표 10>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1년동안 추천한 단행본은 전체 단행본량의 66%를 넘고 있으며 그들이 추천한 도서의 구입비는 전체 단행본 구입비의 80%가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도 교수들은 자기들에게 더욱더 포괄적인 자료 선정권이 주어지기를 요구하고 있다. 한 예로 최근 사회과학대학의 J교수가 도서관측에 보낸 '몇가지 생각'이라는 제목의 메모랜덤(Memorandum)을 들 수 있다⁷⁷⁾. 이 문서에서 J교수는 교수의 자료 선정권과 관련하여 자기들은 제도적으로 제한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적으로 도서관 직원들에게 가 있는 기본도서, 교양도서, 참고도서의 선정권을 교수들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⁷⁸⁾.

76) 부산대학교도서관 수서실, 1993년도 수서계획(안)

77) 이 문서에서 J교수는 도서관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7개 항목으로 나누어 피력하고 있다. 그중 첫번째와 두번째항이 교수의 자료 선정권과 관계되는 내용이다. 이 문서에서 그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도서관 자료 문제, 시설 문제, 직원 소양 문제 등을 조금씩 언급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도서관 이용자로서의 애정어린 비판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78) J교수의 메모랜덤, 1994. 4. 11.

현재 도서관에서 교수들의 추천을 통해 구입하는 도서는 대체로 연구용/교재용 도서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 장서의 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본도서/교양도서/참고도서의 구입은 전적으로 도서관 직원들이 구입을 결정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수들에게 주어진 도서 추천 액수로는 연구용/교재용 도서조차도 충분히 추천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현 제도상으로는 교수들은 기본도서/교양도서/참고도서의 추천은 고려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고, 또 그러한 기회도 제도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J교수의 문서에 대한 도서관측의 답변에서는 교수들에게 기본도서, 교양도서, 참고도서의 선정권이 없다는 J교수의 주장은 오해이며 국내자료를 전적으로 사서가 선정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⁷⁹⁾.

본도서관 장서중 외국도서(서양서, 일본서, 중국서등)는 100% 교수추천에 의하여 구성되고, 국내자료는 과반수 정도 사서(직원이 아님)가 선정하며 그외는 학생 추천, 교수추천으로 구입하고 있으나 '92-'93년도는 학술잡지 구입비 충당으로 단행본 도서구입이 거의 되지 못하여 장서 빈약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문에 교수의 국내자료 추천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전례대로 계속 추천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생요망도서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자료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서 선정권을 모두 사서가 독점하고 있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그리고 J교수는 현재 도서관 장서의 문제가 사서의 선정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⁸⁰⁾.

그런데 문제는 현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기본도서/교양도서/참고도서들이 양

79) J교수의 메모랜덤에 대한 수서실의 답변, 1994. 4. 14.

80) J교수의 메모랜덤, 1994. 4. 11.

은 고사하고 서가에 꽂힌 책들도 선정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필요한 것은 없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적어도 우리 학과와 관련된 분야의 책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고전적인 책들, 기본적인 참고자료, 유명한 책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책이 구입된다면 도서관의 도서 구입 예산이 아무리 늘어날수록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도서관측에서는 과거의 장서가 많은 부분 교수추천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적으로 사서의 선정 잘못만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도서관 자료의 선정은 전체 장서를 파악할 수 있는 현장 사서에 의해 계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인다⁸¹⁾.

현재 서가에 있는 장서가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은 어느정도 인정을 하며 도서관의 입장에서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사서의 선정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국내에서도 많은 부분이 교수추천에 의해 구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대한 대학당국의 정책이나 한국의 대학도서관이 걸어온 길 그리고 도서관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 등을 고려해보면 현재의 장서가 복합적인 도서관 내 외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서가 교수들에 비해 전문지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서지정보와 나름대로의 선정기준에 근거하여 책임감 있게 자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현실적으로 교수 연구서적을 제외한 자료의 선정은 도서관 전체 장서를 파악할 수 있는 현장 사서에 의해 계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진이 자신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서보다 더 유용하고 적합한 자료를 선정할 수 있다는 논리는 일면 일리가 있다. 그러나 교수는 사서에 비해 도서관 장서를

81) J교수의 메모랜드에 대한 수서실의 답변, 1994. 4. 14.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망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자기의 전공 주제분야나 주 연구분야 자료를 편향되게 추천할 수도 있다. 이 사실은 교수와 사서 양측이 모두 인정하는 것이다.

교수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신청하긴 하는데 다소 이기적인 요구에서 할 수도 있다. 가령 자기만 보는 특수한 분야의 책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렇다⁸²⁾.

유리한 점은 교수들이 보는 책을 자기가 직접 선택하기 때문에 연구와 학습에 적서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문제는 자기 전공에 편향된 추천을 하여 장서구성에 체계성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과 전공별로 추천이 불균형하게 되면 결국 장서가 불균형하게 구성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매업자의 로비로 교수들이 질이 낮은 장서를 추천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⁸³⁾.

서점목록이 교수에게 그대로 들어가서 그것을 근거로 추천하게 되면 장서의 질에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건 결국 업자들 창고 정리해 주는 것 밖에 안되는 것이다⁸⁴⁾.

유리한 점은 주제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자료 선정이 정확하다는 것이고 문제점은 고도의 전문가 수준에서 자료 선정이 이루어지므로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핵심자료는 제외되고 오히려 지엽적이고 소수의 특정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가 추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수들은 충분한 출판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즉흥적이고 일시적이며 개인적인 요구에 의해 자료를 추천하며 오히려 꼭 필요한 자료를 추천하지 않고 가격이 비싸고 자신들이 소장하기에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추천하는 경향마저 보인다⁸⁵⁾.

교수추천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경우 보다 전문적인 자료 선정이 될 수 있으나, 어느 한 분야에 치중될 가능성이 많아 장서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⁸⁶⁾.

82) H교수와의 인터뷰

83) L사서와의 인터뷰

84) Y사서와의 인터뷰

85) K사서와의 인터뷰

86) C사서와의 인터뷰

교수가 자료를 추천함으로써 초래되는 문제로 사서들은 주제별 장서 편향성 외에도 양식없는 추천의도에 의해 장서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서 연구나 강의에 꼭 필요한 자료가 아닌데도 출판업자나 서점업자의 부탁을 받고 추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교수 자료추천제도의 문제는 구입자료의 이용도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91년, 92년에 추천되어 구입, 정리 완료된 구입서양자료 3,485권에 대한 이용도 조사에서 1993년 1월 현재 60.3%의 도서가 한번도 대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⁸⁷⁾. 그리고 대출된 자료도 교수진보다 대학원생에 의해 훨씬 많이 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⁸⁸⁾.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자료추천권이 진정한 자료 이용자에게 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의문으로 남는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때 교수의 자료추천제도는 현실적인 불가피성과 유익에도 불구하고 사서진의 계속적인 개입과 조정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 학생

수적으로 보면 대학사회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 그룹은 어떻게 장서구성에 참여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학생들이 자료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한가지 밖에 없다. 학생요망도서제도를 이용한 신청 방법이 그것이다. 1993년에 학생요망에 의해 추천된 자료는 <표 4>에 나타나듯이 동양서(국내서, 일서, 중국서) 230종, 서양서 256종 이었다. 학생들이 가지는 이용자로서의 비중을 고려해 볼때 교수진에 비해 훨씬 적은 양의 도서를 추천하고 있다. 이들은 제도적으로 자료 추천의 권리를 박탈 당했는가, 아니면 이들의 게으름이나 무지로 추천을 하지 않는 것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학생요망도서제도를 학생들은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이 제도를 운용하는데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87) 손정, 신주영, “자료수집업무 전문화의 문제”, 전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제9차 사서연수회(1994. 7. 7-8) 발표문, P. 10. 현재 부산대학교도서관에서는 구입도서에 대한 구입 통보서와 정리완료 통보서를 추천자에게 발송하기 때문에 도서의 입수 여부는 충분히 통지가 되고 있다.

88) 위의 글, P. 12.

사서와 학생들의 면담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대학원생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그들은 학생요망도서제도를 잘 모르고 있으며 알아도 신청한 후 자료를 이용하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잘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학부생의 경우에는 학생요망도서제도를 알고 있기는 하지만 '자료를 신청하는 귀찮은 일'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체로 대학원생들은 제도 운영과정에 발생하는 불편으로, 학부생들은 근본적인 자료 요구의 부족으로 학생요망도서제도를 잘 이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박사 갑: 학생요망도서제도가 있는 것을 알기는 하는데 도서관에 자료를 신청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정작 책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이미 그 자료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직접 책을 구입하게 된다. 도서관에서 장서개발위원회같은 기관이 있어서 기본자료를 포괄적으로 미리 갖추어 놓으면 좋을 것이다.

석사 을: 학생요망도서제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 도서관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통로로 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도서관에 기대를 하지 않는다.

석사 을: 나도 전혀 몰랐다. 도서관을 좌석 이용하는 곳이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기본적인 인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자료를 활용하는 학습습관이 안 되어 있어서 자료에 대한 요구가 적은 것도 한 이유가 될 것이다.

박사 갑: 도서관측에서 홍보를 잘 안해서 학생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⁸⁹⁾

학생 갑: 내가 생각하기에 학부생들은 대체로 찾는 자료가 없으면 포기하고 만다. 그리고 학생요망도서제가 있다는 것은 하는데 한번도 이용은 안해 봤다.

89) 교육학과 대학원생과의 인터뷰

학생 병 : 학생요망도서제가 있는 것을 아는데 일단 자료에 대해 소극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구입해 달라고 신청하지 않는 것 같다.

학생 을 : 학부생의 경우 근본적으로 자료에 대한 끈질긴 탐색욕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하는 것이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⁹⁰⁾

그리고 대학원생들은 그들의 경험과 선형적 인식으로부터 도서관에 대한 불신감이나 일종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석사 을 : 한번도 도서관에 자료를 구입해 달라고 요청해본 적이 없다.

석사 갑 : 교수추천카드로 한번 해봤다. 학생신분으로 신청하면 잘 안사준다는 말이 있더라.

박사 을 : 국내 연구소에서 나오는 자료를 구해 달라고 신청을 여러번 했는데 소식이 없더라.

박사 갑 : 조교로 근무할 때 교수님들 추천금액 남은 걸로 많이 했다. 그래서 내 전공분야(교육행정학)의 서양서는 비교적 많이 있는 편이다⁹¹⁾.

위의 면담 내용을 보면 대학원생들은 자료를 구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나 학부생의 경우에는 도서관에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미리 포기해 버린다고 한다.

학생 갑 : 내가 생각하기에 학부생들은 대체로 찾는 자료가 없으면 포기하고 만다. 그리고 학생요망도서제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한번도 이용은 안해 봤다.

학생 병 : 학생요망도서제가 있는 것을 아는데 일단 자료에 대해 소극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구입해 달라고 신청하지 않는 것 같다.

학생 을 : 학부생의 경우 근본적으로 자료에 대한 끈질긴 탐색욕이 부족하기 때문

90) 교육학과 대학원생과의 인터뷰

91) 교육학과 대학원생과의 인터뷰

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하는 것이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⁹²⁾.

사서들은 학생요망도서제도가 잘 운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학생들과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대학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료 없이 칠판과 백묵, 그리고 일방적인 교수의 강의에 의해 수업이 이루어 지고 암기해서 시험치면 되는 식의 대학 교육이 문제다. 대학의 강의실이 자료를 많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학생들이 자료 요구를 많이 할 것이다⁹³⁾.

먼저 홍보 부족과 도서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부족을 들 수 있고, 자료 없이도 학습이 가능한 교육 현실 또한 문제라고 생각한다⁹⁴⁾.

도서관 장서와 자료추천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⁹⁵⁾.

그들은 도서관의 홍보부족을 들기는 하지만 더 큰 이유는 학생들의 인식부족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도서관 자료를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지 못하는 대학의 강의 형태도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 문제는 특히 학부과정에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당사자인 학부생들도 사서진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

학생 갑 : 수업의 방법과 도서관 자료 이용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학생들로 하여금 뭔가를 조사하고 토론하게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이끌어가면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도서관 자료를 많이 이용하고 요구하게 될 것이다. 요즘은 교수님들이 자료를 필요로 하는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 같다.

92) 교육학과 학부생과의 인터뷰

93) L사서와의 인터뷰

94) K사서와의 인터뷰

95) C사서와의 인터뷰

학생 병 : 강의 형태나 과제의 성격에 따라 도서관 자료의 이용도가 변한다고 생각한다. 리포트를 안 내주면 자료를 잘 이용하지 않는데 우리는 리포트가 많아서 도서관 자료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대학의 수업이 자료를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 을 : '우리 씨클의 후배들 중에 특히 공대생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대출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열람중에 단한번의 대출혼적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공대의 경우 자료를 많이 이용하지 않아도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 자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도서관측에서도 좀더 강화된 도서관 자료 이용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⁹⁶⁾.

양측의 생각이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학생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으며 알아도 잘 활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사서진과 학부생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욱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가 있어야 될 것이며 요망도서에 대한 신속한 구입도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이다.

각 단대에 요망함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도서관에 오지 않고서도 자료를 신청하도록 하며 설치 장소를 좀 더 눈에 잘 띄는 곳에 정하도록 하는 것 뿐 아니라 요망함의 시각화도 고려해야 한다. 요망제도의 적극적 홍보와 무엇보다 요망자료에 대한 도서관의 즉각적인 자료 지원 및 반응이 있어야 학생들로 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⁹⁷⁾.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홍보활동을 펼쳐야한다고 생각한다⁹⁸⁾.

학생 감 :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도서관 자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96) 교육학과 학부생과의 인터뷰

97) K사서와의 인터뷰

98) C사서와의 인터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도서관쪽에서 홍보를 더 강화 했으면 좋겠다.

학생 병 : 학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 가령 2층의 연속간행물실이나 4층의 동양 자료실 입구에 자료신청을 할 수 있는 코너를 설치하면 좋겠다.⁹⁹⁾

학생들은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가장 큰 이용자 그룹이며 가장 다양한 자료 요구를 가진 집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수진에 비해 자료선정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들은 연구자와의 면담에서 도서관에 대해 많은 불만을 털어 놓았다.

석사 갑 : 학부생들도 마찬가지로하겠지만 대학원생들이 자료 뿐만 아니라 도서관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통로가 전혀 없는 것 같다. 도서관에서 별로 홍보도 안하는 것 같다.

박사 을 : 대학원생들이 자료 추천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는 걸로 안다.

석사 을 : 나도 동감이다.

박사 갑 : 도서관측의 홍보가 없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 (학생요망도서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언제든지 대학원생들이 자료를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대학원생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도서관을 통해 자료를 구하려는 의욕이 전혀 없는 것 같다. 한마디로 도서관에 대한 인식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¹⁰⁰⁾.

결론적으로 학생들은 도서관 자료선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면서 잘못된 장서 구성에 의해 가장 큰 불이익을 당하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¹⁰¹⁾. 학부생은

99) 교육학과 학부생과의 인터뷰

100) 교육학과 대학원생과의 인터뷰

101) 학생들은 부산대학교도서관에서 구하지 못하는 자료를 주로 사적인 방법으로 구하며 거기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과 경비는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면담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도서관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과 냉소를 조감하게 된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도서관 밖의 학습 현장에서 자료 이용을 유도받지 못하고 있으며 학부생 스스로도 자료에 대한 욕구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학원생의 경우는 연구과정에 첫 발을 내디딘 입장에서 많은 자료 요구를 가지고 있지만 도서관의 제도적, 운영적측면에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IV. 어떻게 할 것인가 - 결론에 대신하여

대학도서관 장서가 가지는 많은 문제는 그것이 무계획적으로 축적되었다는 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장서개발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장서개발규정이 체계적이지 않거나 어떤 경우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부실한 장서 구성의 잘못 꿰어진 첫 단추라는 것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장서개발 지침을 가지고 있을 때 사서는 소신있게 전문직으로서 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서개발규정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힘을 가지는 장서개발의 근거가 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개정과 수정 작업에 의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장서개발 규정에서는 현재 장서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기존 장서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는 장서개발의 기초 정보로 활용되어 사서로 하여금 장서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에 의존한 장서개발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장서 개발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경직되고 피상적인 문구로 구성된 장서개발 규정이 유연하고 실체적인 것으로 전환될 때 그것은 장서개발 담당자인 사서의 힘있는 무기가 될 것이며 비로소 체계적이며 망라적인 장서 구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행정업무가 사서 본연의 업무인 것처럼 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장서 구성에 대한 사서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사서와 교수진 모두 궁극적인 장서개발 담당자는 사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파다한 행정업무와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적극적인 자료 선정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외국 자료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자료를 교수와 학생의 추천에 따라 구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사서가 자료 선정에 깊이 개입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다고 생각한다. 그 하나로 우수한 서지도구의 개발과 이용을 들 수 있다. 도서 추천자들이 좋은 자료를 추천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며 포괄적인 서지도구를 확보하여 효과적으로 이용시킨다면 간접적이거나 사서가 자료 선정 작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문간의 경계가 점점 낮아져 가는 현대의 학문 연구 경향에 따라 서지도구를 유사 학문분야 연구자들에게 폭넓게 이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사서의 자료선정 업무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다른 한가지 방안은 현재의 장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사서가 현 장서를 학문 주제별로 양적으로 파악하고 가능하다면 질적 수준까지 파악하여 인식하고 있다면 자료 선정자로서의 체계모니를 확보하는데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장서평가의 기본 단계가 되며 장서개발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일이다. 그리고 사서는 추천 도서의 양상을 파악하여 이용자 요구의 지형을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까지나 사서가 이용자의 추천도서를 구입해 주는 행정 보조업무만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서는 체계적인 장서 구성을 위해서 자료 선정자로서 부족한 역량을 교수진과 학생들로부터 협조 받아야 한다.

그 양과 가치에 있어 구입 자료에 못지 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증 자료는 보다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지침에 근거하여 개발 되어야 한다. 특히 계속성을 가지고 출간되는 자료나 정부간행물과 같은 자료는 적극적으로 수집해야만 장서의 체계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수증자료의 선별작업 또한 장서 구성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자료구입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장서개발 계획에 입각하여 예산을 확충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 없이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 분배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가치가 높은 자료와 이용 요구가

많은 자료를 파악하여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행한다든지 기본장서와 같은 필수불가결하게 선결되어야 하는 분야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와 학습 활동에서 제기되는 자료 요구와 자료의 추천 기회가 공평한지 검토하는 것도 현재적으로 의미를 가진다. 대학원생들과 같이 많은 연구 자료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에게 자료 추천 기회를 주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잘 운용하는 것도 좋은 장서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도서관 장서는 오랜 역사속에서 숨쉬고 있는 거대한 유기체이다. 밝고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는가 하면 어둡고 험상궂은 얼굴을 가지기도 하는 다면적인 그 무엇이다. 장서의 오랜 역사와 다양한 속성속에는 앞에서 살펴본 것들 뿐만아니라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요인들이 용해되어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장서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할 때 혹은 장서의 강점을 강화하고자 할 때 그 속에 용해되어 있는 영향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가장 선행되어야 하며 필수불가결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장서개발조직과 장서개발지침은 어떠하며 사서의 자질과 업무형태는 어떠한가, 또한 예산은 어떻게 투입되고 이용되며 자료 구입의 전문화 문제는 어떠한가, 그리고 이용자와의 의사소통과 이용자의 자료선정참여는 어떠한가. 이와같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개선함으로써 현재의 장서가 가지는 문제를 규명하고 우수한 장서구성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인 시각에서 장서구성의 영향요인을 연구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서의 양과 질이 영향요인들의 양상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가며 영향요인들간에는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령 시간적 흐름에 따라 자료 선정권 문제는 어떻게 변화해 가며 자료 선정권을 두고 선정권자들은 어떤 갈등과 조화의 현상을 보이는지, 그리고 결국 그것은 어떤 현상으로 귀결되는지를 연구하는 테마와 같은 것이다.

이런 측면의 연구는 도서관 장서가 개발되어 가는 현상의 본질적인 요인을 규명해 볼 수 있는 유용한 작업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A. 국내자료

-논문자료-

- 김정근. "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문제." 도서관문화 제34권 제6호(1993. 11/12) : 411-426.
- 김정근.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사서중심의 장서개발은 가능한가?." 도서관학논집 제20집(1993) : 61-105.
- 류인석. "한국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2.
- 박정길. "대학도서관 수서시스템의 문제 분석에 관한 연구." 부산산업대학교 논문집 8(1987) : 111-137.
- 양병훈. "대학도서관장서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도서관 정치적 사회학 집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4.
- 이경민. "대학도서관 장서구성에 관한 연구 -특히 경영학자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4.

-단행본자료-

-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 국립대학도서관보 제11집(1993). 대구 : 국립대학도서관 협의회, 1993.
- 부산대학교 40년사 편찬위원회. 부산대학교 40년사. 부산 : 부산대학교 40년사 편

찬위원회, 1986.

부산대학교 도서관. 도서관소식 창간호. 부산: 부산대학교 도서관, 1989.

_____ . 도서관소식 제2호. 부산: 부산대학교 도서관, 1990.

_____ . 도서관소식 제3호. 부산: 부산대학교 도서관, 1992.

_____ . 도서관소식 제4호. 부산: 부산대학교 도서관, 1993.

_____ . 도서관소식 제5호. 부산: 부산대학교 도서관, 1993.

_____ . 도서관소식 제6호. 부산: 부산대학교 도서관, 1993.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학기논고집 제1집. 부산: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91.

_____ . 학기논고집 제2집. 부산: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92.

_____ . 학기논고집 제3집. 부산: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92.

_____ . 학기논고집 제4집. 부산: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92.

부산대학교 총학생회등 편. 부산대학교도서관 개혁운동자료집 (1987. 9-1988. 12). 부산: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1989.

랑캐스터, F. W. 저, 장혜란 역. 도서관서비스평가론. 서울: 구미무역, 1990.

송영희 등저. 장서개발론. 서울: 구미무역, 1992.

B. 외국자료

-논문자료-

Baughman, J. C. "Toward a Structural Approach to Collection Development."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 38, No. 3 (1977. 5) : 241-248.

- Feng, Y. T. "The Necessity for a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Statement."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 23, No.1(1979 winter) : 39-44.
- Whaley, J. H. Jr. "An Approach to Collection Analysi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 25, No.3(1981 summer) : 330-350.

-단행본자료-

- Bonk, Wallace John and Magril, Rose Mary. *Building Library Collection*. Metuchen, N. J. : the Scarecrow Press, 1979.
- Charles H. Busha & Stephen P. Harter. *RESEARCH METHODS IN LIBRARIANSHIP : Techniques and Interpretation*. New York : ACADEMIC PRESS, 1980.
- Columbia University Library. *Collect Development Policy Statement* N. Y. : Columbia University Library, 1988.
- Evans, G. Edward. *Developing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Collections*. Littleton, Colo : Libraries Unlimited, 1987.
- Futus, Elizabeth, ed. *Library Acquisition Policies and Procedures*. Phoenix, Ariz : Oryx Press, 1984.
- Gardner, Richard K. *Library Collections : Their Origin, Selection and Development*. N. Y. : McGraw-Hill, 1981.
- HALL, BLAINE H. *Collection Assessment Manual for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es*. Phoenix, Ariz : Oryx Press, 1985.
- Kent, Allen & Lancour, Harold ed.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 4, New York : MARCEL DECKER, 1970.

Lancaster, F. W. *If you want to evaluate your library*. Champaign, IL. :
University of Illinois, 1988.

C. 문서자료

- 1993년도 수서계획(안) (부산대학교도서관 수서과).
- 장서통계(부산대학교도서관 수서과).
- 사회과학대학 J교수의 메모렌덤. 1994. 4. 11.
- J교수의 메모렌덤에 대한 수서실의 답변('94. 4. 14, 부산대학교도서관 수서과).
- 기타 서류 및 공문철(부산대학교도서관 수서과)

D. 면담자료

- C교수와의 인터뷰 (1994. 4. 20, 오후 6:13-6:40, 전화인터뷰)
- H교수와의 인터뷰 (1994. 4. 19, 오후 4:00-5:00, H교수 연구실)
- J교수와의 인터뷰 (1994. 4. 19, 11:30-12:30, J교수 연구실)
- L사서와의 인터뷰 (1994. 4. 14, 오후4:00-5:00, 부산대도서관 수서실)
- Y사서와의 인터뷰 (1994. 4. 14, 오후4:00-5:00, 부산대도서관 수서실)
- K사서와의 인터뷰 (1994. 4. 18, 오후4:00-5:00, 부산대도서관 수서실)
- C사서와의 인터뷰 (1994. 4. 18, 오후4:00-5:00, 부산대도서관 수서실)
- 이상재 주무사서와의 인터뷰, 1994. 4. 28, 오전 11시, 부산대도서관 수서실.
- 교육학과 대학원생과의 인터뷰, (1994. 4. 18, 오후2:00-4:00, 교육연구소, 그룹 인터뷰)
- 교육학과 학부생과의 인터뷰, (1994. 5. 6, 오후 12:10-1:10, 교육학과학회실, 그룹인터뷰)

An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he Building of the University Library
Collec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Education Collection
of the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Jung-gun Kim*, Jong-sung Kim**

〈Abstract〉

The present survey aimed at analyzing factors influencing the development of the university library collection, with the special reference to the case of the Education Collection of the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For this, the present researchers have identified two areas of influencing factors, i. e., library factors and user factors. Library factors included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manpower, materials received as gift and budget. User factors included faculty and students.

For analyzing the factors, the present researchers have relied on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using heavily documents produced within the case library, interviews with librarians, faculty and students, and observation.

*) Professor, Department of Library, Archives and Information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 Monograph Acquisitions Librarian,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